

##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연구\*

박이스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 연구는 신종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공중보건 위기를 다루는 언론 보도 프레임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운동 연구의 집합행동 프레임 전략으로 논의되는 진단(diagnostic), 예후(prognostic), 동기(motivational) 프레임을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에 적용하여 내용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한국 언론은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 확산, 피해 상황 등과 같은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진단 프레임에 가장 역점을 두고 대응과 관련된 의미 구성 즉, 예후 프레임과 대중의 참여와 협조, 지지를 유도하는 동기 프레임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를 감염성 질환 진행의 단계에 따라 구분한 뒤 프레임의 양적 우위의 순서를 관찰했을 경우와 보도사진과 그래픽 등의 시각적 정보를 관찰했을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발생 사실 기술에 편재(偏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집합행동 프레임의 향후 활용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집합행동 프레임, 헬스 커뮤니케이션

\* 이 논문은 박이스리의 석사논문에 기초해 수정하였습니다.

\*\* esuinaus@gmail.com

## 1. 문제 제기

환경파괴와 기후, 생태계 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emerging), 재출현(re-emerging) 국외 유입 감염성 질환 발생이 증가 추세다(Jones et al., 2008). 신종 감염성 질환은 ‘과거 20년간 사람에게서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과 가까운 미래에 증가가 의심되는 감염병’으로 정의되는데(WHO, 1997), 바이러스성 병원체의 돌연변이 오류 수정 능력(mutation error-correction ability)이 낮은 반면 인체를 포함한 새로운 숙주 적응 능력이 높아 대유행(pandemic)을 피하기 힘들다(Jones et al., 2008). 병원체의 전파경로는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한 비말 전파와 공기의 역학적 이동에 의한 공기매개,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전파경로를 찾아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인구집단 단위의 행동 중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주요한 대처 방법이다. 여기에는 공공장소 폐쇄, 학교 휴교, 대규모 행사 취소, 이동 제한,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과 같은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영역에서의 자가 격리, 위생수칙 준수, 공공장소 이용 자제, 예방지침 준수 등과 같은 절제가 포함된다.<sup>1)</sup> 이는 신종 감염성 질환의 대응은 국가와 지자체 수준에서의 제재와 규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구집단 전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연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Braunack-Mayer et al., 2010; CDC, 2011; Kinlaw et al., 2009).

신종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용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관찰하는 경험적 연구와 별도의 연구 가치가 있다. 언론 보도가 개인에 의해 수용되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수준에서는 언론이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의미

---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03.04. 공포)

에 대한 공적 지식(public knowledge)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Schudson, 1995). 셔드슨에 따르면 언론 보도는 공적으로 주목할 만한 어떤 것으로, 현실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사회 제도이자 표현 체계다(Schudson, 2011, p.8). 이 과정에서 보도의 영향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새로운 정보들을 밝혀 연결하는 범위, 특정한 사회적 규범과 집단 의식을 조직하는 것”으로 확장된다(Schudson, 1995). 예컨대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서 언론은 대중에게 예방 행동을 포함하는 행동 변화 유도와 사회적 통제에 대한 참여와 지지, 문제 해결 과정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Anderson et al., 2020; Smith, 2006). 나아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내포하며 질병 극복 이후 사회의 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여론 및 정책의 접점으로도 역할 한다(Covello et al., 2001; Hodgetts et al., 2008). 이때 언론 보도 프레임은 공적 지식의 형태로 조직된 정보를 관찰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conceptual tools)로써 사회가 공중보건 위기를 경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의 존재와 역할을 찾는 작업의 방법론적 유용성을 제공한다.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그러나, 텍스트에 중점을 두고 보도가 조직된 방식의 편향을 확인하려 하거나 두드러진 특정 텍스트를 도출한 뒤 새로운 프레임으로 명명하는 단편화된 경향을 노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의 사회적 구성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프레임 연구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만, 프레임을 협의적(狹義的) 측면에서 해석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선행연구를 프레임 도출 방법<sup>2)</sup>으로 나눠 살펴보면,

2) 언론 보도에서 프레임을 탐색하는 방법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으로 나뉘볼 수 있다. 연역적 접근은 선행연구들에서 관찰된 정형화된 프레임 유목에 의거하여 보도를 분석한다. 귀납적 접근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도 내용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프레임을 나열하고 의미를 도출해 나간다(Semetko &

정형화된 프레임 유목을 신중 감염성 질환 보도에 적용한 연역적 접근의 연구들(Beaudoin, 2007; Lee & Paik, 2017; Liu & Han, 2013; Luisi et al., 2018 ; Luther & Zhou, 2005; Oh & Zhou, 2012)은 프레임을 기자와 뉴스 생산 조직이 사회 체계를 규정하는 고정된 방식으로 해석한다. 언론이 보도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selection)하는 패턴에 주목하여 기존의 정치·사회 갈등 기사에서 확인된 프레임 관행이 신중 감염성 질환 보도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언론이 선택하고 의미화한 특정 현실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지만, 프레임을 ‘언론이 구성한 사회적 현실의 편향을 관찰하는 도구’라는 형식적 가치로 제한한다. 그 결과 연구 결과의 도출에 있어 연구자가 의도한 특정 결과만을 양산하며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의미 해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표층에 드러나지 않은 보도의 내적 의미의 존재를 간과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신중 감염성 질환의 발생이라는 특수적 상황에서 작동하는 언론의 역할과 활용을 논의하기 어렵게 한다.

귀납적 접근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도출한 연구(Adekunle & Adnan, 2016; Hong, 2007; Krishnatray & Gadekar, 2014; Sandell et al., 2013; Shih et al., 2008; Wang et al., 2010)의 경우는 기자의 텍스트 선택 결과로 나타나는 현저성(salience)에 의존해 프레임을 정의하고 도출한다. 이 경우, 새로 도출된 프레임이 언론의 프레임 작업의 결과인지, 아니면 새로 출몰한 바이러스 자체가 내포하는 필연적 속성에 관한 진술인지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개념들 가운데 프레임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어떤 차별성을 갖고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을 획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 프

---

Valkenburg, 2000).

레임 유목들간의 상호 배제성을 확보하지 않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혼재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낮추며 언론이 프레임을 통해 이슈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미와 특징에 대한 규명의 결여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영기 & 유명순(2011)은 “신종 감염성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현실이 뉴스 보도를 통해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관한 연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연구 결과가 바이러스에 관한 사회의 위협 인식 제고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패턴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사회운동 연구에서 설득의 전략으로 논의되는 진단(diagnosis) - 예후(prognosis) 프레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을 공적 가치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간주하고 공중보건 개입의 중재 방법이자 대상으로 준용했다는 점에서 실용적 시사점이 있다. 이 연구는 주영기 & 유명순(2011)이 제시한 연구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프레임을 광의적(廣義的)으로 해석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이후 프레임 유목을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에 적용해 분석해 봄으로써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에 대응하는 언론의 역할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프레임의 해석과 역할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전통과 이론적 배경, 분석 대상 등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어 개념화되면서 발전했다.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이 정의한 프레임의 개념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Primary Framework)’이자 ‘해석의 도식(schema of interpretation)’이다. 연구자에 의하면 개인들은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 경험을 ‘분류 및 해석의 체계(scheme of classification and interpretation)’의 범주에 귀속시킨다. 즉 개인은 현실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여 인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에 입각하여 현실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의사 결정과 행동을 다르게 조직한다.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인지가 행동을 매개하는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며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특정 이슈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원용된다(송용희, 200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자들은 프레임을 보도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 설명했다. 프레임 개념을 뉴스 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터크만(Tuchman, 1978)에 의하면 기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성, 분류, 전달하기 위해 이슈의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한다. 이것은 기자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 강조, 배제하는 지속적 패턴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결과다(Gitlin, 1980). 고프만의 정의와 연결해 이해해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 조직된 정보는 수용자가 현실 속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행동하게 되는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이때 정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정보가 조직된 방식인 프레임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점은 프레임은 기자에 의해 선택과 배제 과정을 거쳐 발생한 사회적 구성체(construct)로, 정보가 구축되고 정의되고 분류된 의미 단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단위는 언론이 공적 사안에 대해 “개념을 규정하고(problem definition), 인과관계를 해석하며(causal analysis),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moral judgment), 대응 방안 제시를 촉진하는(remedy promotion)” 역할을 포함한다(Entman,

2007). 나아가 리스(Reese, 2001)는 프레임이 사회 단위의 의미를 생성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자는 프레임을 “단순히 정보를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넘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체가 없는 현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창출해내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구성원칙(organizing principle)이며, 이것은 상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세계를 의미 있게 구조화(meaningfully structure)한다”고 해석했다. 원칙이 구성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텍스트 이외의 추상적인 정보가 능동적으로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며, 구조화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정보들이 설득력을 갖도록 큰 범주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프레임은 내재화된 사회의 정보를 반영하며 일반적인 집단 원칙을 포함하는 의미 단위로 사회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Baresch et al., 2010). 이렇게 구조화된 의미 단위는 사회적 담론에 영향을 끼치며 공공 생활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각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사회운동 연구들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연구자들은 프레임을 사회의 규범적 변화를 위한 전략 행동의 자원으로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넷(Barnett, 1999)은 “프레임은 의미를 수정하고 경험을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설득력 있는 도구로, 수용자의 경험을 조직하여 집단이 위협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정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페인(Payne, 2001)은 “프레임은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공유되는 규범들을 구성하는 기본 형성 요소(building blocks)의 역할을 하며 행동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는 프레임의 공유를 통한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목적을 반영하는 규범을 공유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집단적 의미를 만들어 사회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프레임을 ‘사회적 의미(social meanings)를 만드는 도구’라고 정의한 연구자도 있으며(Brysk, 1995), 특정 행동의 필요성과 적절함에

대한 ‘사회 지식(social knowledge)’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설명한 연구자도 있다(Keck & Sikkink, 1998). 갠슨 &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프레임을 이슈가 되는 것을 이해시키고, 문제가 무엇인지 제안하는 ‘중앙 조직 아이디어(central organizing idea)’라고 해석했다. 이때 프레임은 공론(public discourse)의 쟁점에 대한 논쟁의 다양한 이념적 주장(ideological packages)과 상징적 투쟁을 대중에게 전달해 대중이 참여 또는 비참여의 의미를 구성해 나아가도록 돕는다(Gamson, 1975; Gamson & Modigliani, 1989). 이 과정은 대중의 참여와 동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양가적인 의미로 구성된다. 그 결과 잠재적 참여자는 갈등보다는 이슈와 쟁점을 해결해 나갈 단서들을 모색하며 사회적 사안에 집중하고 행동에 참여할 조건을 갖춰나간다(McLeod & Detenber, 1999).

정리해보면 프레임은 정보가 조직된 방식을 넘어 수용자 개인의 인지는 물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특징을 갖는 의미 단위로, 그 행동이 사회적 수준에서 추동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행동 참여의 전략 자원으로 해석한 사회운동 연구의 관점은 프레임을 공동체적 가치 추구와 사회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작동하는 역할로써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임 연구는 리스의 주장과 같이 언론이 선택한 텍스트의 현저성을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레임이 내포하는 의미 단위가 사회에서 어떠한 효용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추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신중 감염성 질환 보도를 사회운동 연구에서 논의되는 집합행동 프레임을 적용해 관찰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한다.

## 2) 집합행동 프레임 (Collective Action Frame)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기존의 사회 구조나 규범의 변화를 목표로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구현하는 행동의 유형이다(Diani, 1992).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참여에 동원(mobilization)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회운동 조직은 집합행동을 조직한다. 연구자들은 집합행동을 “정의되지 않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Blumer, 1969) 또는 “공유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공동행동(joint action)”(Tilly, 1962)으로 정의했다.

집합행동 프레임은 이러한 동원 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행동 기반 전략으로 등장했다. 갠슨(Gamson, 1992)에 의하면 집합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행동 지향적 신념(action-oriented beliefs)과 의미들의 복합체’로 정의된다. 의미의 복합체라는 것은 상황, 사건, 경험 등 현실의 한 부분을 강조하며 (punctuations),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attributions),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를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중심으로 의미 있게 연계(articulation)시키는 해석적 장치(interpretive apparatus)다 (Snow & Benford, 1992). 그리고 이러한 의미 구성은 ‘합의 동원(consensus mobilization)’과 ‘행동 동원(action mobilization)’ 두 가지 상호연계되는 작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합의 동원’은 현실진단에 관한 논쟁으로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의식과 이념적 수준에서의 지지를 획득하고 잠재적 참여자들을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행동 동원’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여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과정이다(Klandermans, 1984; 1989).

합의 동원과 행동 동원은 스노우 & 벤포드(Snow & Benford, 1988)가

제시한 진단(diagnostic), 예후(prognostic), 동기(motivational) 프레임으로 다시 구체화되면서 의미 단위의 발현적 특성을 갖게 된다. 진단 프레임은 변화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정의하여 문제 원인의 책임과 소재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며, 예후 프레임은 진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거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Snow & Benford, 1988). 진단, 예후 프레임은 행위자의 의식과 이념적 수준에서 지지를 획득해 잠재적인 참여자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합의 동원'을 지향한다(Benford, 1993; Klandermans, 1989). 동기 프레임은 진단과 예후 프레임의 논의 이후에 개념화됐는데 기존의 사회운동이 변화를 추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과도한 불만 표출로 그치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동기 프레임은 진단 프레임에서 관찰되고 예후 프레임에서 제안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구현에 관여하는 행동 기반적 지시를 포함한다. 이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동해야 할 근거(rationale for action)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지시하는 과정으로 '행동 동원'을 목표로 한다(Benford, 1993; Klandermans, 1989).

집합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 연구에서 행위의 주체가 이루고자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신념들로 구성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도 구성된다. 집합행동 프레임을 신중 감염성 질환 보도에 적용해 탐색한 주영기 & 유명순(2011)은 사회운동과 신중 감염성 질환의 확산은 발생한 문제를 정의하고 규명해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 예후 프레임의 적용이 갈등적 이슈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 발생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할 것임을 예견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스스로가 문제 제기한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운동은 물론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의 중요한 변수인 인구집단의 참여와 협조와 같은 행동적 측면을 고려에 포함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신종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고 예방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대중이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 소재,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안과 방법에 합의를 이루는 것만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합의 동원이 행동의 동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Klandermans, 1984), 행동 촉진의 기제인 동기 프레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사회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로, 바이러스 확산의 차단이라는 과업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포함한다(Anderson et al., 2020; WHO, 2020).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을 매개로 확산하는 질병 특성상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생활의 행동 변화에 개인의 이해와 설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 참여가 공동체의 건강 위기 극복에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미 구성이 요구된다(Lunn et al., 2020; Van Bavel et al., 2020; WHO, 2020). 이 과정에서 언론은 집합행동의 전략적 자원인 동시에 행위자로 역할하며 프레임을 생성하고 전승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Cottle, 2008; Walgrave & Manssens, 2005). 선행연구에서 언론의 집합행동 프레임은 차별, 인권, 인종, 환경의 갈등적 주제와 관련해 그것이 소수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사회적 이슈라는 프레임을 상징하고 문제의 해결에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와 집단행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Khan, 2014; Rao et al., 2000; Franceschet, 2004; Lubitow, 2013; Noonan, 1995). 연구자들은 집합행동 프레임을 통해 전달하는 일관된 의미의 구성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여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고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한다고 설명했다(Ostrom, 2000). 나아가

집합행동 프레임은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희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과 이러한 대안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이 기꺼이 그러한 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바움 외(Baum et al., 2009)의 연구자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재되는 개인의 윤리 문제와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진단과 예후 프레임을 통한 합리적인 정보 전달과 동기 프레임을 통한 설득의 전략이 대중의 공중보건 명령 준수 의도를 상승시키며 공공 숙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잘 조직되어 연계되는 집합행동 프레임은 사회운동의 의미화 활동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에 적용되었을 때 언론의 역할이 유도하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추정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프레임을 사회적 행동 추동의 메커니즘을 내포하는 의미 단위로 해석한데 이어 집합행동 프레임을 구성하는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의 의미 구성이 대중의 이해와 지지,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신종 감염성 질환 대응과 합목적적 성격을 갖는 데서 기인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를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는 진단, 예후, 동기적 의미로 구성된 프레임 유무를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경향을 보일 것인가?

### 3) 시각적 정보(visual information)

일간지 지면의 구성은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로 나뉘 볼 수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의 영역에서 시각적 정보

(visual information)는 보도를 구성하는 사진과 그래픽을 포함한다(Coleman, 2010). 보도사진은 사건 대상에 대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말하며 그래픽은 데이터나 개념, 개요 등을 그래프, 표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Messaris & Abraham, 2001). 연구자들에 따르면 시각적 정보는 텍스트와 결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공동 구성자(co-constructors)’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DiFrancesco & Young, 2011). 예컨대 표와 그래프와 같은 수치적 정보는 위험 규모, 누적된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 상황을 가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한다(Lipkus, 2007; Lipkus & Hollands, 1999). 이러한 특성은 바이러스와 같이 무형으로 존재하는 위험과 관련해 수용자에게 경험적 사례를 제공해 위험의 실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수용자들에게 상황을 이해하는 근거(evidence)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ekkers & Moody, 2014; Dauber, 2001).

시각적 정보의 영향은 위험 인식 분야의 연구에서 수용자의 위험 인지와 상호작용한다는 결과들을 축적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표나 그래프가 제공하는 수치적 정보는 텍스트로 표현될 때 보다 명료성, 중요성, 복잡성의 영역에서 수용자의 인지 및 이해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Johnson & Slovic, 1995). 특히 개인의 행동을 매개하는데 있어 텍스트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위험을 평가하고 최소한의 정보 처리 또는 사고로 의사 결정을 유도하도록 한다(Gibson & Zaillmann, 2000; Rodriguez & Dimitrova, 2011). 연구에서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을 수치적 정보로 접한 수용자는 텍스트로 인지한 경우에 비해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추가 정보 탐색 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됐다(Wong et al., 2013). 특히 위험 판단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시각적 정보가 수용자에게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

다고 설명했다(Messaris & Abraham 2001; Wong et al., 2013).

이상의 논의는 시각적 정보가 내포하는 의미 단위는 텍스트와 별개 혹은 함께 작용하며 위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수용자의 지식과 행동을 매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역할 할 수 있음을 예견한다. 즉 시각적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위험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목표로 하는, 혹은 목표로 요구받는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함의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추가함으로써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연구문제 1-1 :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는 진단, 예후, 동기적 의미로 구성된 프레임 유무를 적용했을 때, 보도 구성 포맷(텍스트/시각적 정보) 별로 차이가 있을 것인가?

#### 4) 보도 전략으로서의 프레임

감염성 질환의 관리는 상황에 맞는 대응 중심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질병의 사회적 확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WHO, 2013). WHO는 대유행 인플루엔자 위험 관리지침(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에서 감염성 질환의 확산 단계를 소강(Interpandemic), 경계(Alert), 대유행(Pandemic), 이행(Transition)의 4개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대응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WHO, 2013).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큰 이벤트로 볼 것이 아니라 확산 양상에 따라 물리적 방역 및 정책, 치료 옵션 등을 달리 하는 것이다(Blendon et al., 2008; Vaughan & Tinker, 2009). 즉, 감염성 질환의 물리적 대응이 질병의 사회적 확산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 대응을 다루는 언론 보도 대응과 전략 또한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와 같이 정보가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사망자가 실시간 발생하는 시간대의 보도는 감염성 질환이 수습되어 종식되는 시간대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응거(Ungar, 2008)는 조류 독감(Avian Influenza) 유행의 진행 상황에 따른 언론의 역할을 관찰하고 효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에서 언론은 초기 단계에서 인구집단의 감염과 사망을 알리는 경고(alarm) 중심의 보도를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백신 공급을 포함한 과학적 해결과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는 안심 정보가 나타났으며 유행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질병 극복과 새로운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한 정보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위기의 상황에서 언론이 공중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패닉으로 가는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프레임 방식을 관찰한 양정혜(2010) 또한 비슷한 발견을 보고했다. 연구자는 언론이 극적인 요소에 주목하며 공포와 불안을 유발시키지만 이것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대중의 불안이 공황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징후를 보일 경우 정부의 대비 태세를 보도하는 식의 질서 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이 질병 확산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 보도의 활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는 질병의 사회확산 단계별로 구분했을 때 진단, 예후, 동기적 의미로 구성된 프레임 유목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 3.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및 수집 방법

분석 대상은 2009년과 2015년 한국에서 유행한 신종플루와 메르스 관련 기사다. 두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의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 매체는 2018년 기준(2019년 발표) 한국 ABC협회에 등록된 전국 대상 종합 일간지 중 발행 부수 상위 10개 일간지다.<sup>3)</sup> 분석 기사 수집은 국내 일간지 지면을 PDF 형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아이서퍼 4.0(Eyesurfer)’<sup>4)</sup>를 이용해 매일 자 1면을 모두 수집한 뒤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를 선별했다. 이 연구에서는 신종 감염성 질환과 같은 이슈 주목도가 높은 뉴스에 대해 언론의 보도량이 짧은 시간 동안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사를 모두 수집하거나 무작위 수집하는 방법 대신 신문 1면 기사로 한정해 분석 대상으로 했다. 신문 1면은 제한된 공간에 기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해 중요도와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다른 어떤 페이지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며 이슈의 대표성을 갖는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Danielson & Lasorsa, 1997).

수집 기간은 한국에서 의심 및 확진 환자 보도가 발생한 첫 날부터 정부가 감염성 질환 유행 상황을 공식 종료한 다음 날까지로 했다. 수집 기간을 공식 종료 다음 날까지로 한 것은 전날 소식이 다음 날 게재되는 신문 제작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종플루의 경우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 환자 발생 보도가 있었던 2009년 5

3) 조선일보(1,308,395부), 동아일보(965,286부), 중앙일보(978,279부), 한겨레(214,832부), 문화일보(190,670부), 한국일보(221,859부), 경향신문(190,745부), 서울신문(165,608부), 국민일보(128,959부), 세계일보(95,139부).

월 1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 하루 뒤인 2010년 4월 2일까지 총 337일간이다. 신종플루의 경우 한국 정부의 공식 종료가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이 '실질적인 종식'이라는 표현을 쓴 날을 기준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10개 언론은 평균 285.3회 신문을 발행했다. 메르스의 경우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 환자 발생 보도가 있었던 2015년 5월 20일부터 정부가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공식 종료한 하루 뒤인 2015년 12월 24일까지 총 219일간이다. 219일 동안 주 6일 발행 신문(문화일보 제외)의 발행일은 186회이며, 2010년부터 주 5일 발행으로 전환한 문화일보는 152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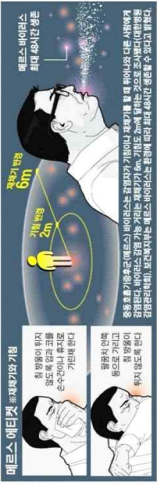

## 2) 프레임 측정

이 연구의 프레임 측정은 연역적 접근으로 프레임 측정에 앞서 각 프레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코딩 질문지를 만들었다<표 1>. 코딩 질문지에는 각 프레임의 분별을 위한 질문이 포함된다. 질문지의 진단, 예후 프레임 정리에 주영기 & 유명순(2011)과 유명순 외(2017)의 연구를 참고했다. 주영기 & 유명순(2011)은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프레임 연구에서 진단 프레임을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피해와 증상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예후 프레임을 감염성 질환 대처의 개인 수칙과 정부 관계 기관들의 대책 등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했다. 나아가 연구자들은 한국 언론의 기후변화 보도를 진단, 예후 프레임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진단, 예후 각 프레임 별로 5개의 측정 진술문을 개발해 정리했다(유명순 외, 2017). 이 연구는 연구자들이 신종플루 보도에 적용했던 '진단', '예후' 프레임의 정의와 기후변화 보도를 통해 개발한 프레임의 진술문을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단어를 변경해 차용했다. 동기 프레임은 스노우 & 벤포드(Snow & Benford, 1988)의

〈표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코딩 지침지

프로레이	No	질문	기사 예시
진단	S01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현황/경도를 다루고 있는가?	신종플루 사망자 수명으로 늘어 (경향신문, 2009.09.03.)
	S02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가?	메르스 환자 절반이 응급실서 유했다 (조선일보, 2015.06.20)
	S03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목적의 적절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는가?	메르스 환자 절반, 초기 격리도 없었다 (경향신문, 2015.06.01.)
	S04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다루고 있는가?	병원 도미노 폐쇄 ... 환자를 "어디로" 받 동동 (한국일보, 2015.06.16)
예후	S05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가?	메르스 격리 1300여명 '진용 범람' 추진 (국민일보, 2015.06.04.)
	S06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개인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가?	손 자주 씻고 공공장소에선 마스크 고령자·만성질환자는 외출 자제를 (조선일보, 2015.06.06)
	S07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대처 책임자/집행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템, 자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황고안 총리 인준안 통과 ... "내가 메르스 킷트를 타워" (경향신문, 2015.06.19)
	S08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가?	[계동의 메르스 마이라] 보건의로 진문가 35명 설문 "감염병 언제든지 재발, 질병 역량부터 키워야" (동아일보, 2015.06.22.)
동기	S09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공중과 지역 사회의 참여나 지지를 조망하거나 유도하는가?	[메르스와 싸우는 사람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일보, 2015.06.19)
	S10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정서적이고 공감적인 요소를 포함하는가?	메르스와의 전쟁, 심리전부터 이기자 (동아일보, 2015.06.12.)
	S11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동체적 행동 대응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조망하거나 제시하는가?	[이슈 추적 메르스를 이기자] 못 미더운 정부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식 (중앙일보, 2016.06.05.)
	S12	해당 기사는 신종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변화 및 대응 방안 모색에 공동체적 참여와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가?	메르스 2차 확산 ... 함께 뛰어야 마는다 (동아일보, 2015.06.08.)

〈표 1〉 신중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코딩 질문지 (계속)

프레임	No	질문	기사 예시
진단	S13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현황/정도를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p><b>기사 예시</b></p> <p><b>메르스 환자 절반, 초기 격리도 없었다</b></p>  <p>메르스 환자 절반, 초기 격리도 없었다 (경향신문, 2015. 06. 21.)</p>
	S14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의 원인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S15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대처의 적절성 및 문제점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S16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영향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S17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S18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개인적 대응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예후	S19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대처 책임자/행위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력, 자책)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p><b>기사 예시</b></p> <p><b>메르스 에티켓, 무책임하게</b></p>  <p>메르스 에티켓, 무책임하게 (조선일보, 2015.06.05.)</p>
	S20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변화 및 대응 방안 모색에 관한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를 제시하는가?	
	S21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를 통해 대중 혹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노력을 조명하거나 유도하는가?	
	S22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정서적이고 공감적인 요소를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동기	S23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공동체적 행동 대응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방법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p><b>기사 예시</b></p> <p><b>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b></p>  <p>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일보, 2020.06.19.)</p>
	S24	해당 기사는 신중 감염성 질환 예방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변화 및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필요성을 시각적 정보(기사의 제목과 캡션)로 제시하는가?	

연구를 참고해 정리했다. 연구자들은 동기 프레임에 대해 진단과 예후 프레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행동의 합리성(rationale for action)’을 제시하고 ‘동원(call to arms)’하게 한다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수용자를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유인을 포함하는데 ‘문제의 심각성(severity of the problem)’, ‘사안의 긴급성(sense of urgency)’, ‘행동의 효능감(efficacy of taking action)’, ‘행동의 타당성(propriety of taking action)’을 강조하는 언어가 사용되며,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Benford, 1993; Snow et al., 2018).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진술문을 구성했다.

### 3) 질문지 타당도

이 연구에 사용되는 프레임 측정 질문지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이하 CVI)를 조사했다. 내용 타당도는 개발된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혹은 개념을 정확하고(appropriate) 대표성 있게(representative) 반영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자 간의 일치도(inter-rater agreement)를 나타내는 CVI를 도출해 판정한다(Haynes et al., 1995; Polit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 코딩 질문지의 문항이 실제 기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설명하는지 측정하는 4점 척도의 내용 타당도 설문지를 제작했다 (1점= 관련 없음, 2점= 문항의 수정 없이는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음, 3점= 어느 정도 관련은 있으나 약간의 문항 수정이 필요함, 4점= 매우 관련 높음) (Lynn, 1986). 문항의 평가는 내용 분석 참여 경험이 있는 현직 기자 1명, 언론학 전공 대학원생 2명, 보건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이 참여했다. CVI는 질문 문항의 동의자(3점, 4점) 수를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어 도출했다(예: 문항에

대해 6명 중 5명이 동의 =  $5/6 = .83$ ). 이 연구에서 CVI의 절단점 (cut-off score)을 .80으로 정하고(Davis, 1992), 절단점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은 수정한 뒤 다시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CVI를 도출했다. 최종적으로 24개 문항의 CVI는 .80부터 1.00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 4) 보도 단계 구분

연구문제 2는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이 질병 확산의 단계별로 활용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기 단계를 구분하고 대응을 논의한 핑크(Fink, 1986)의 연구를 참고했다. 위기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위기 점증(Build up), 위기 고조(Break out), 위기 소강(Abatement), 위기 종료(Termination). 위기 점증은 위기 발생의 단서나 전조 등이 나타나는 시기로 위기의 확인과 예방, 준비 등을 위한 경고의 단계다. 위기 고조는 실제 위기가 전개되는 시기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단계다. 위기 소강은 위기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복구와 사후 노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며 위기 종료는 위기의 명확한 종결의 단계다(Fink, 1986).

실제 보도를 핑크의 위기 단계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 언론의 메르스 사설을 내용 분석한 유명순 외(2017)의 연구와 네덜란드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내용 분석한 연구(Vasterman & Ruigrok, 2013),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참고했다. 신종플루의 경우 2009년 5월 1일 한국에서 첫 신종플루 환자의 발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주의→경계→심각→주의의 단계를 거쳤다. 반면 메르스의 경우 2015년 5월 20일 한국에서 첫 메르스 환자의 발생이 언론에 보

도된 이후 2015년 9월 9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차례 격상된 이후 2015년 12월 1일 관심 단계로 하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구분이 감염 확산에 대한 방역의 대응 주체를 중심으로 조정되기 때문인데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인된 신종플루와 달리 메르스의 경우 정부가 감염 확산을 병원을 통한 제한적 전파로 규정하면서 위기 경보 단계의 조정이 신종플루와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위기 경보 구분과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상황적 구분을 참고해 적용했다.

위기 점증은 신종플루와 메르스 국내 첫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짜 하루 뒤부터 위기 고조 단계가 시작하는 날짜의 하루 전이다. 위기 고조는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짜부터 위기 소강 전날까지다. 위기 소강은 신종플루의 경우 전국 750만 초중고 대상 예방접종 조기 실시된 날부터 다음 단계 구분이 시작되는 전날까지로 했으며, 메르스의 경우 치료환자의 감소가 시작된 날부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날 하루 전날까지로 했다. 위기 종료는 신종플루의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sup>4)</sup>를 기존의 '경계(Orange)'에서 '관심(Blue)'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언론이 '실질적 종식'이라는 단어를 사

4) 한국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구분은 총 4개 단계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이다. 주관기관(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위기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관심(Blue)'은 해외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원인 불명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이며, '주의(Yellow)'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경우다. '경계(Orange)'는 해외 혹은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한 경우다. '심각(Red)'은 해외 혹은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징후가 있는 경우다(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2017년 12월 개정).

용한 날 까지도. 메르스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었던 날부터 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한 다음 날까지로 했다<표 2>.

<표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단계 구분

위기 단계 구분	신종플루	메르스
위기 점증 (Build up)	2009.05.01. ~ 2009.08.14. 국내 신종플루 감염 첫 확진~	2015.05.20. ~ 2015.06.01. 국내 메르스 감염 첫 확진 ~
위기 고조 (Break out)	2009.08.15. ~ 2009.11.11. 신종플루 관련 첫 사망 ~	2015.06.02. ~ 2015.06.16. 메르스 의심 환자 첫 사망 ~
위기 소강 (Abatement)	2009.11.12. ~ 2009.12.10. 전국 750만 초중고 대상 예방접종 조기 실시~	2015.06.17. ~ 2015.07.04. 치료 환자 감소 시작 ~
위기 종료 (Termination)	2009.12.11. ~ 2010.04.02. 국가재난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언론이 '실질적 종식'이라는 단어 사용)	2015.07.05. ~ 2015.12.24. 신규 확진자 발생 없음 ~ 메르스 종식 공식 선언

## 5) 코딩

프레임 코딩의 판별 요소는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나 수단 또는 구성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엔트만(Entman, 1993)에 따르면 프레임은 보도의 내용에서 강조된 키워드, 메타포, 컨셉, 심볼, 시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된다. 탠커드(Tankard, 2001)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인을 구체화해 다음의 11개로 분류했다: 헤드라인, 서브 헤드, 리드, 진술 및 단평, 사진, 사진 캡션, 정보원, 인용, 전체인용, 로고, 통계와 차트. 이러한 요소들은 보도의 주제

또는 의미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다. 프레임 장치 각각의 영향력은 상이한 것으로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연구는 프레임 분석의 대상을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로 구분하여 코딩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경우 헤드라인, 리드, 기사 본문을 구분하며 시각적 정보의 경우 사진과 캡션을 함께 고려한다.

### (1) 텍스트

프레임 분석 단위는 개별 기사로 코딩 질문지에 명시된 질문을 근거로 프레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 각 프레임 점수를 도출한다. 이때 개별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프레임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역피라미드 기사 구성의 위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텍스트 기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헤드라인(Headline), 리드(Lead), 기사 본문 순으로 기사의 현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Eveland et al., 2009; 유홍식, 2009). 가중치를 얼마로 둘 것인가는 연구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사 구성의 중요도와 현저성을 고려해 헤드라인에 3점, 리드 2점, 기사 본문 1점을 부여한다<sup>5)</sup>. 이러한 방법은 기사에 내포된 모든 프레임을 코딩할 수 있고, 프레임별 중요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나의 위치에서

---

5) 헤드라인은 기사의 제목으로, “신문이나 신문 기사의 앞에 내용을 가리키거나 요약하기 위해 굵은 활자로 붙인 낱말이나 낱말군(群)이다”(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기능적 측면에서 헤드라인은 특정 의미를 활성화하는 가장 두드러진 단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프레이밍 장치이기도 하다(Pan & Kosicki, 1993). 리드(Lead)는 기사의 첫 문장을 말하는데 전문(前文)이라고도 한다. 리드에는 기사의 흐름이나 중요도 요지 등이 집약되어 있다(임영호, 2013, p.184). 기사 본문은 기사에서 제목과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다. 본문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리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텍스트다. 1단 짜리 기사와 같은 짧은 기사에서는 리드와 본문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임영호, 2013, p.186). 이 연구에서는 1단 기사의 경우 헤드라인과 리드로 코딩했다.

하나 이상의 프레임이 발견된다면 최대 3개까지 복수코딩 한다. 따라서 헤드라인은 최소 0점에서 최대 9점, 리드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점, 기사 본문은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이 산정될 수 있다. 즉 하나의 기사에서 헤드라인과 리드, 기사 본문에 각각의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의 점수를 매긴 후 마지막에 각 프레임의 점수를 합산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사에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 점수가 각각 도출된다. 예를 들면 헤드라인에 진단 프레임이 존재하고, 리드에 진단과 예후 프레임, 기사 본문에 진단 프레임이 존재하는 기사의 최종 프레임 점수는 진단 프레임 6점, 예후 프레임 2점, 동기 프레임 0점이다 <부록 1> 참고.

## (2) 시각적 정보

시각적 정보 기사 프레임 분석 대상은 개별 보도사진과 그래픽<sup>6)</sup>, 삽화, 표를 포함한다. 분석은 코딩 질문지를 근거로 기사의 시각적 정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프레임의 존재 여부(유=1, 무=0)를 판단한다. 기사의 제목과 캡션<sup>7)</sup> 또한 프레임 판별에 포함한다. 이후 전체 지면에서 해당 기사가 차지하는 세로 단(column)<sup>8)</sup>의 비율을 계산해 프레임 점수에 더한다. 예를 들면 6단짜리 신문 지면에서 5단에 걸쳐진 동기 프레임 보도사진의 경우, 프레임 점수 1점과 신문 전체 단에서 보도사진이 차지하는 단의 비율인 0.8(5/6)을 더한 1.8점이

- 6) 시각적 정보 기사에서 그래픽은 기사 내용을 보완하거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다. 통계 수치를 정리한 도표나, 지도, 기사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것이 해당된다(임영호, 2013, p. 252).
- 7) 보도사진의 캡션은 사진이 주는 혼동이나 모호함을 막기 위해 글로 설명을 붙이는 것이다. 캡션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임영호, 2013, p.215~216).
- 8) 신문 지면의 단(column)은 세로 분할을 의미하며 그 넓이에 따라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손석춘, 1997).

해당 기사의 동기 프레임 점수가 된다 <부록 II> 참고.

## 6) 코딩의 신뢰도

사회과학 분야 내용 분석 방법 표준 절차에 따라 두 명의 코더가 코딩에 참여했다(Wimmer & Dominick, 2011). 코딩에 앞서 두 명의 코더는 연구 목적과 이론적 고찰과 분석 유목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으며 주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다른 한 명의 코더가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체계적 무작위 표집(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통해 전체 샘플의 약 25%를 사전 코딩했다.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친 질문지를 근거로 전체 기사에 대해 본 코딩을 실시한 뒤 두 코더 간 신뢰도를 구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코헨 카파(Cohen's Kappa) 신뢰도 계수를 산출해 검증했다. AIAG 매뉴얼<sup>9)</sup>에 따르면 카파 값이 0.75 이상일 경우 적절히 합치됨을 의미한다. 사전 코딩의 코더 간 신뢰도 분석 결과 분석 항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신뢰도 계수가 항목 간 0.82~ 0.88로 코딩 신뢰도 허용범위에 해당되었다. 이후 진행한 최종 코딩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평균 0.88로 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했다.

## 7) 분석

보도 프레임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을 설명변수로 하고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 ANOVA)을 실시했다. 위기 단계별 프레임 변화의 차이를 보기

---

9)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AIAG) (2010). Measurement Systems Analysis Reference Manual, 4th edition. Chrysler, Ford, General Motors Supplier Quality Requirements Task Force

위해서는 별도의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해 두드러진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때 두 가지 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각 단계별로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을 설명변수로 하고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는 각 단계를 설명변수로 하고 개별 프레임(진단, 예후, 동기)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전자는 각 프레임별 양적 차이의 변화가 각 위기 단계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개별 프레임의 현저성(salience)이 각 위기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 4. 연구 결과

#####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양적 특징

###### (1) 1면 수집 결과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에서 관련 기사를 포함한 1면을 수집한 결과 신종플루의 경우 총 320개의 페이지, 메르스의 경우 총 288개의 페이지가 확인되었다. 수집된 1면을 위기 단계에 따라 나눠, 지면 수를 본 결과 신종플루는 위기 고조 단계에 과반수(61.6%) 집중되었다. 다음으로는 위기 점증(26.3%), 위기 소강(7.8%), 위기 종료(4.3%) 순이었다. 메르스 보도 또한 위기 고조 단계에 1면의 수가 집중되었는데 43.4%로 과반을 넘지 않는 정도였으며, 위기 소강(32.3%)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신종플루 보도에서 위기 소강 다음으로 위기 점증에서 지면 수가 많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표 3>.

〈표 3〉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위기 단계에 따른 1면 수집 결과  
(단위 : 건, 일 (%))

위기 단계 구분	신종플루		메르스	
	1면 페이지 수	일 수	1면 페이지 수	일 수
위기 접중 (Build up)	84 (26.3)	97 (28.8)	28 (9.7)	14 (6.4)
위기 고조 (Break out)	197 (61.6)	97 (28.8)	125 (43.4)	14 (6.4)
위기 소강 (Abatement)	25 (7.8)	33 (9.8)	93 (32.3)	21 (9.6)
위기 종료 (Termination)	14 (4.3)	110 (32.6)	42 (14.6)	170 (77.6)
전체	320 (100)	337(100)	288 (100)	219 (100)

(2) 1면 구성 방식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관련 1면의 구성 방식을 오직 텍스트로만 구성된 경우, 오직 시각적 정보로만 구성된 경우, 텍스트와 시각적

〈표 4〉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구성 방식 (단위 : 건 (%))

1면 구성 방식	신종플루	메르스
텍스트 (Only Text)	248 (77.5)	94 (32.7)
시각적 정보 (Only Visual Information)	21 (6.6)	5 (1.7)
텍스트/ 시각적 정보 혼합 (Text and Visual Information)	51 (15.9)	189 (65.6)
전체	320 (100)	288 (100)

정보가 혼합되어 구성된 경우로 나눠 양적 분포를 봤다.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방식은 신종플루 관련 기사의 경우 오직 텍스트로만 구성된 경우로 신종플루 관련 전체 보도 기사 가운데 77.5%를 차지했다. 메르스 관련 기사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가 혼합된 방식으로 65.6%를 차지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모두 시각적 정보 기사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각각 6.6%와 1.7%였다<표 4>.

### (3) 1면 기사량

수집된 1면 기사량을 위기 단계에 따라 나누고 비교해 본 결과 신종플루와 메르스 모두 위기 고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량을 보였다.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 모두 이 시기에 기사량이 높았다. 텍스트

<표 5>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위기 단계 구분에 따른 1면 기사량  
(단위 : 건 (%))

위기 단계 구분	신종플루		메르스	
	텍스트	시각적 정보	텍스트	시각적 정보
위기 점증 (Build up)	92 (29.0)	10 (11.0)	28 (7.2)	15 (5.1)
위기 고조 (Break out)	194 (61.2)	71 (78.0)	209 (53.7)	181 (61.8)
위기 소강 (Abatement)	24 (7.6)	10 (11.0)	123 (31.6)	88 (30.0)
위기 종료 (Termination)	7 (2.2)	0 (0)	29 (7.5)	9 (3.1)
전체	317 (100)	91 (100)	389 (100)	293 (100)

기사의 경우 신종플루 관련 보도량은 위기 고조(61.2%), 위기 점검(29.0%), 위기 소강(7.6%), 위기 종료(2.2%) 순으로 높았으며, 메르스 관련 텍스트 기사는 위기 고조(53.7%), 위기 소강(31.6%), 위기 종료(7.5%), 위기 점검(7.2%) 순이었다. 시각적 정보 신종플루 관련 기사의 경우 위기 고조(78.0%) 시기에 기사가 가장 많고 위기 점검(11.0%)과 위기 소강(11.0%)이 같은 수준이다. 위기 종료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메르스는 위기 고조(61.8%), 위기 소강(30.0%), 위기 점검(5.1%), 위기 종료(3.1%) 순이었다<표 5>.

#### (4) 언론사별 기사량

언론사별 기사량은 다음과 같다<표 6>. 신종플루의 텍스트 기사

<표 6>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언론사별 기사량 (단위 : 건 (%))

	신종플루		메르스	
	텍스트	시각적 정보	텍스트	시각적 정보
경향	16 (5.0)	7 (7.7)	37 (9.5)	24 (8.2)
국민	37 (11.7)	10 (11.0)	48 (12.3)	41 (14.0)
동아	26 (8.2)	12 (13.2)	47 (12.1)	32 (10.9)
문화	54 (17.0)	9 (9.9)	30 (7.7)	28 (9.6)
서울	30 (9.5)	7 (7.7)	45 (11.6)	32 (10.9)
세계	48 (15.1)	6 (6.6)	46 (11.8)	35 (11.9)
조선	28 (8.8)	12 (13.2)	46 (11.8)	22 (7.5)
중앙	24 (7.6)	8 (8.8)	32 (8.2)	21 (7.2)
한겨레	25 (7.9)	8 (8.8)	29 (7.5)	24 (8.2)
한국	29 (9.1)	12 (13.2)	29 (7.5)	34 (11.6)
전체	317 (100)	91 (100)	389 (100)	293 (100)

는 317건이며, 시각적 정보가 91건이다. 메르스는 텍스트 389건, 시각적 정보 293건이다.

##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텍스트 프레임 양적 분포

연구문제 1은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텍스트에서 집합행동 프레임의 분포를 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의 기사들을 종합해 프레임 경향을 살펴본 결과, 진단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졌고(M=4.35, SD=2.40), 예후 프레임 (M=1.52, SD=2.28)이 그 뒤를 이었다. 동기 프레임(M=0.23, SD=1.12)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 2115]=769.86, p<.001]. 한편 신종플루와 메르스 각각의 보도에서 발견되는 프레임이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 모두에서 진단 프레임이 압도

〈표 7〉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텍스트 프레임의 양적 특징

	프레임 유목	Mean	SD	F-value
신종플루	진단	4.63	2.18	543.14**
	예후	1.55	2.24	
	동기	0.00	0.00	
메르스	진단	4.11	2.54	300.32**
	예후	1.49	2.31	
	동기	0.42	1.49	
전체	진단	4.35	2.40	769.86**
	예후	1.52	2.28	
	동기	0.23	1.12	

\*\* p<.01

적인 우위를 보였고(M=4.63, SD=2.18; M=4.11, SD=2.54), 예후 프레임(M=1.55, SD=2.24; M=1.49, SD=2.31), 동기 프레임(M=0.00, SD=0.00; M=0.42, SD=1.49)이 그 뒤를 이었다[F2, 948)=543.14, p<.001; F2, 164)=300.32, p<.001].

### 3)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 시각적 정보 양적 분포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의 사진과 그래프 등 시각적 정보에서도 텍스트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시각적으로도 진단 프레임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M=1.07, SD=1.04), 대응 관련 사안, 즉 예후 프레임(M=0.33, SD=0.65)과 동기 프레임(M=0.10, SD=0.39)은 미미했다[F2, 1149)=179.77, p<.001]. 이는 감염성 질환 각각의 보도를 분리해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표 8>.

<표 8>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시각적 정보의 양적 특징

	프레임 유목	Mean	SD	F-value
신종플루	진단	0.83	0.73	46.63**
	예후	0.64	0.77	
	동기	0.00	0.00	
메르스	진단	1.15	1.11	155.91**
	예후	0.24	0.57	
	동기	0.13	0.45	
전체	진단	1.07	1.04	179.77**
	예후	0.33	0.65	
	동기	0.10	0.39	

\*\* p<.01

#### 4) 신종 감염성 질환 위기 단계별 보도 프레임 변화

연구문제 2는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텍스트 프레임이 위기 보도 단계별로 다르게 활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결과 위기 단계별로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 간의 양적 우위의 순서가 달라지는 않은 채 전 시기에서 진단 프레임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9>. 다만, 개별 프레임들이 네 개의 위기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두드러졌는가를 살펴보면, 진단 프레임이 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위기 점증 시기(M=5.25, SD=1.63)에서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예후 프레임은 위기 고조 시기(M=1.82, SD=2.37)에서, 동기 프레임은 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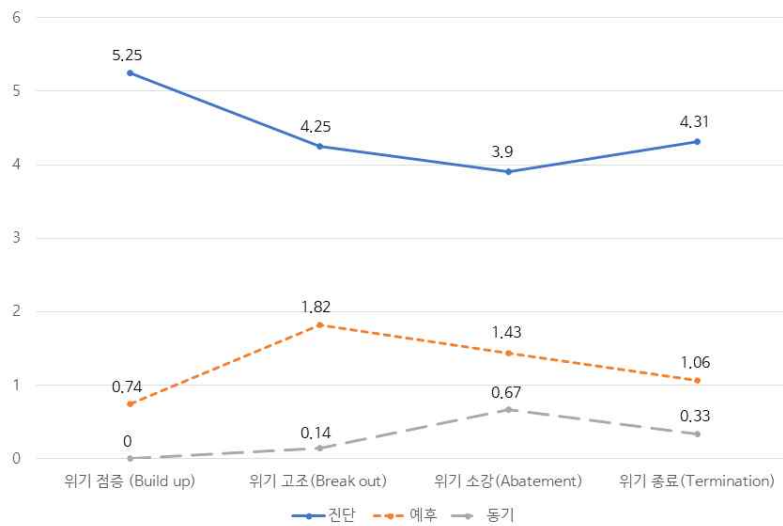
<표 9>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텍스트 프레임의 변화

위기 단계 구분	프레임 유목	Mean	SD	F-value
위기 점증 (Build up)	진단	5.25	1.63	542.51**
	예후	0.74	1.65	
	동기	0.00	0.00	
위기 고조 (Break out)	진단	4.25	2.42	422.77**
	예후	1.82	2.37	
	동기	0.14	0.85	
위기 소강 (Abatement)	진단	3.90	2.63	79.73**
	예후	1.43	2.32	
	동기	0.67	1.87	
위기 종료 (Termination)	진단	4.31	2.60	37.15**
	예후	1.06	2.20	
	동기	0.33	1.20	

\*\* p<.01

시기(M=0.67, SD=1.87)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예후 프레임과 동기 프레임이 각각 위기 단계의 고조와 소강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이 같은 사실은 그러나,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진단, 예후, 동기 프레임이 각 위기 단계에서 실제로 다른 시기보다 두드러진 양상을 보인 것의 통계적 유의성은 개별 프레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일원분산분석에서 확인되었다. 즉, 진단 프레임은 위기 점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종료 단계에서 소폭 상승의 기초를 보였고(F3, 702)=7.87, p<.001], 예후 프레임은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 위기 급증 단계에서 상대적인 상승을 보인 뒤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3, 702)=7.83, p<.001]. 동기 프레임은 위기 소강 단계에서 다른 시기보다 선명하게 포착이 되었다(F3, 702)=10.54, p<.00, 그림 1].



(그림 1)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텍스트 프레임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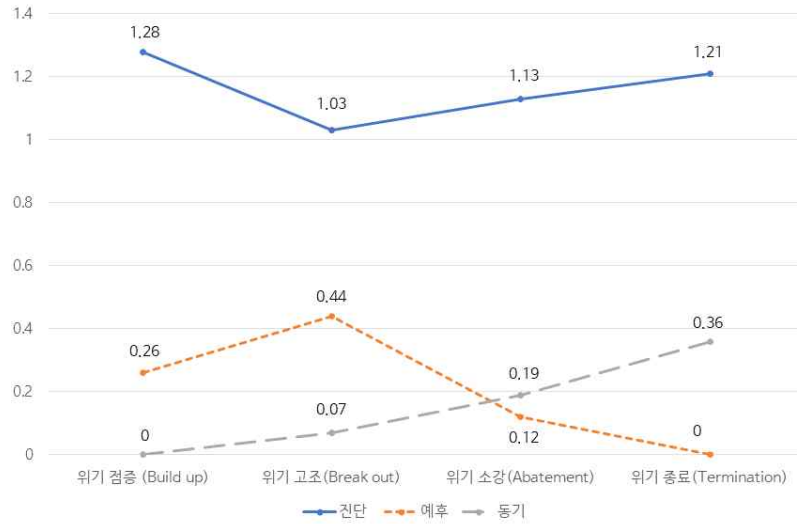
시각적 정보의 프레임도 위기 단계별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유일한 차이는 동기 프레임을 내포한 사진, 그래픽은 텍스트처럼 소강 단계가 아니라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해 위기 종료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표 10>.

<표 10>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시각적 정보의 변화

위기 단계 구분	프레임 유목	Mean	SD	F-value
위기 점증 (Build up)	진단	1.28	0.59	47.95**
	예후	0.26	0.60	
	동기	0.00	0.00	
위기 고조 (Break out)	진단	1.03	1.22	84.95**
	예후	0.44	0.71	
	동기	0.07	0.32	
위기 소강 (Abatement)	진단	1.13	0.55	123.76**
	예후	0.12	0.42	
	동기	0.19	0.53	
위기 종료 (Termination)	진단	1.21	0.70	10.55**
	예후	0.00	0.00	
	동기	0.36	0.71	

\*\* p<.01

시각적 정보의 위기 단계별 차이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진단 프레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예후, 동기 프레임은 위기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380)=6.98, p<.001; F3, 380)=4.09, p<.01, 그림 2).



(그림 2)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1면의 위기 단계별 시각적 정보 점수 변화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공동체의 건강 위기를 대처하는 언론의 역할을 프레임의 활용을 탐색함으로써 찾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 연구에서 논의되는 진단, 예후, 동기적 의미 단위로 구성되는 집합행동 프레임을 신문 1면의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의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에 적용해 보도량을 파악했다. 또한 질병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에 따라 언론이 프레임을 통한 사회적 의미 구성을 달리하는지도 관찰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프레임의 활용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한국 언론은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보도하는 데 있어 질병 발생 사실 자체를 정의하고 보여주는

진단 프레임을 가장 현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6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발생한 신종플루와 메르스 보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각적 정보의 활용에서도 진단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졌고 대응과 관련된 예후 프레임과 동기 프레임은 미미했다. 위기의 단계별로 프레임의 양적 차이를 봐도 진단 프레임의 우세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를 진단, 예후 프레임으로 분석한 주영기 & 유명순(2011)의 연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단 프레임의 활용은 새롭게 등장한 건강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에게 예방 행동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기여가 있다(Murat et al., 2020; Ornell et al., 2020). 그러나 진단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들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점은 언론이 공동체의 건강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 상황을 단순히 중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위기의 사회적 해결과 대중의 참여 유도,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와 대책 마련과 관련한 의제 형성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 결과에 있어 진단 프레임과 함께 ‘합의 동원’을 형성하는 예후 프레임이 미미했기 때문에 프레임을 통한 대중과의 합의 동원이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고 논의하기 어려우며 동기 프레임 또한 활용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 동원 역시 논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언론의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는 공동체의 방역 대응을 지원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확인되는데 김춘식(2009)은 한국에서 신종플루 유행 기간 동안 10개 신문을 대상으로 보도를 내용 분석한 결과 신종플루로 인한 인명피해에 관한 보도가 4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발생 원인과 증상을 다룬 보도는 전체의 18.5%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단편적 사실을 다루는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김여라

(2010)와 허용강 외(2015)의 연구는 한국 언론이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 이후 사망자나 자극적인 사건에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질병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종플루에 관한 방송 뉴스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공포 담론’이 지배적임을 보인 백선기(2009)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한 김원제(200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된다. 신종플루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미디어 이용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또한 미디어 이용자들이 질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증상의 진행 과정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황치성, 2009).

개별 프레임이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의 위기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진단 프레임은 위기 점증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뒤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종료 단계에서 소폭 상승의 기조를 보였다. 한국 언론은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에 사회와 개인에게 새로운 위험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신종 감염성 질환 확산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언론 보도의 효용성을 관찰한 연구들에 따르면 질병 발생 초기의 보도는 감염성 질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제공된 보도가 위험 발생에 대해 경고하고 정보의 공백을 메워주며 질병 극복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Freimuth et al., 2014; Hallahan et al., 2007; Mummert & Weiss, 2013). 이러한 영향은 감염 확산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방역 행동 변화와 지역사회의 협력 확보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유도한다(Mummert & Weiss, 2013). 특히 감염성 질환 발생 초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에 관한 시각적 정보의 활용은 수용자들에게 위험 발생의 지각과 예방 행동 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감염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접한 대중이 실제보다 위

험을 더 크게 인식하고 공포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rishnatray & Gadekar, 2013; Medeiros & Massarani, 2010; Rossmann et al., 2017). 언론이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해 과장·선정·편파적 보도로 공포를 증폭시킨다는 부정적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Berry et al., 2007; Rossmann et al., 2017; Wallack et al., 1993; 김원제, 2009; 김춘식, 2009; 백선기, 2009; 이귀옥, 2015). 이러한 보도 경향은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연구에 따르면 조류 독감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는 대중에게 광범위한 위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인체 위해 여부와 상관없이 가금류 섭취 거부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결국 가금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파생시킨 것으로 보고된다(송해룡 et al., 2005).

예후 프레임은 초반에는 미미하게 나타나다가 위기 고조 단계에서 상대적인 양적 우위를 보인 뒤 후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기 고조 단계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메르스의 경우 치료환자의 감소가 시작되는 전날까지이다. 이 시기의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첫 사망자가 보도된 다음 날인, 26월 3일 ‘손 자주 씻고 공공장소에선 마스크 고령자·만성질환자는 외출 자제’라는 기사에서 메르스 예방 Q&A를 제공하고 생활수칙을 시각적 정보로 전달했다.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保健 계엄령’ 수준 대응을 ... 공포의 확산 끊자’라는 톱 기사에서 심리적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보도 내용은 2009년 신종 플루의 사례를 들어 최초의 확진자가 마스크 착용과 격리라는 모범적 대처를 통해 공포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하며 국민, 의료인, 정부가 힘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보도 들에서 역시 사회적 대처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6월 6일 ‘政府·지자체 힘 모아야 메르스 이길 수 있다’라는 톱 기사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 위기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으며 ‘메르스 에티켓’이라는 주제로 개인 예방 수칙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전달했다. 중앙일보 또한 6월 8일 ‘병원 24곳 공개 ... ‘메르스 추적’ 전국 확대’, 9일 “전문가에게 병원폐쇄권 주겠다”, 10일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12일 “저승사자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내 환자에게는 메르스 못 오게”와 같은 내용을 연일 톱기사로 다뤘다. 이러한 작업은 환자 사망 이후 위험이 최고조로 이르는 시기에 사회가 건강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안심과 해결의 의미를 조직함으로써 언론이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역할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기 프레임은 위기 소강 단계에서 뚜렷하게 포착되었다. 소강 단계는 메르스의 경우 치료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한 날부터이며 신종플루의 경우 예방접종이 조기 실시된 날부터다. 조선일보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후진적 病室문화 바꾸자’ 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포괄 간호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으며 6월 19일부터 ‘메르스 쇼크에서 배우자’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위기 대응 매뉴얼 공백, 응급실 이용 문제 등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6월 18일 ‘메르스 머슴 자청한 옥천군 160명’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대응을 조명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힘내라 의료진”이라는 기사에서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을 다뤘다. 6월 20일에는 “일찍 치료 ... 해열제·수액만으로 메르스 이겼어요”라는 톱기사에서 메르스를 완치한 환자의 인터뷰를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메르스 징비록’이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서 보건 영역을 독립시키자는 주장과 응급실의 이용 문화 개선에 대해 심층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6월 17일 ‘주춤한 메르스 ... 고통 분담해야 잡는다’는 톱 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와 연대를 다뤘고, 다음 날인 18일에는 “감염 두렵지만 ... 환자 못 살릴까 더 두렵다”라는 톱 기사를 통해 의료진의 노고를 집중 조명했다.

위기 소강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기 프레임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은 대중들을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독려하며 위험의 재발생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는 언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 소강 단계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시각적 정보를 활용해 의료인을 희생과 헌신하는 영웅(hero)적 주체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앙일보는 6월 10일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그림 3>, 6월 12일 의료인들의 비장한 모습 <그림 4>, 6월 13일 땀을 닦는 의료인의 모습 <그림 5>을 연이어 보도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인의 처치 장면을 예후 프레임으로, 의료인의 영웅적 모습은 동기 프레임으로 코딩했다. 처치 장면이 수용자들에게 사회적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반면 영웅적 모습은 정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Graber, 1990; Parrott et al., 2019). 그러나 의료인을 영웅으로 프레임링 하는 것이 갖는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웅적 서사(Heroic narrative)의 남발은 의료인이 노출된 환경적 위험과 구조적 지원의 부재를 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강요하면서 의료 현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토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ox, 2020). 이것이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20일째 메르스의 싸우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호흡기센터장이 9일 병호복을 입고 격리병실을 돌아가고 있다. 그는 “병실에서 날리 버린 메르스가 안전가는 한국에 올 것이라 생각했다. 2012년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어 메르스 치료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확산선”에서 최초 환자를 포함해 4명의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박종근 기자

(그림 3) 박종근 (2015. 6. 10).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중앙일보>, 1면.



병원 내에 격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의료진. 이들은 풍매성고병원체 간 적이 있던 입원 환자(15번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때문에) 지난날 29일부터 환자들과 함께 격리됐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1일 첫 메르스 사망자(25번 확진자)가 나왔다. 그는 풍매성고병원체에서 감염된 상태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그림 4)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2015. 6. 12). <중앙일보>, 1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치료 병원인 대전 대청병원에서 12일 한 의료진이 의자에 앉아 땀을 닦고 있다. 이 병원 조영숙 홍보팀장은 "일부 의사와 간호사가 자택 격리 중인 상태라서 현재 병원 내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는 126명(사망·퇴원 포함)이다. 대전=프리랜서 김성태

(그림 5) 김성태 (2015. 6. 13). <중앙일보>, 1면.

단기적으로 수용자에게 동기적 의미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수준에서도 같은 의미를 구성하는지, 의도하지 않은 프레임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 향후 연구에서 탐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연구에 포함된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프레임 코딩 질문지는 지난 보도의 프레임을 관찰하기 위해 작성되었지만, 실제 보도 현장에서 취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시도한 프레임의 해석 방식과 분석 관점은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게 형성됐다. 이는 정보를 중개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의 의미를 구성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시사주간지 <시사IN>이 'K방역은 있는데 K언론은 왜 없을까'라는 기사에서 보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듯,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언론은 '진실에 대한 취재 대신 표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며',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무성이 없고', '보도를 위한 보도'를 한다. 언론이 마땅히 기대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관점, 즉 언론이 역할 하는 순기능을 찾는 작업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군다나 신문으로 대표되는 전통 매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회의적인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코로나19 관련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중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미디어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종이신문 이용 증가율은 4%로 스마트폰(77%), TV(61%), PC(56%), 독서(33%), 라디오(17%)보다 낮다. 반면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뉴스의 이용 증가율은 69%로 토크쇼/예능(41%), 팟캐스트(38%), 드라마(38%), 음악/가요(34%), 게임(26%), 애니메이션/웹툰(17%), 스포츠, 영화(9%)로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높다(김선호, 2020). 즉 코로나 발생 이후 대중은 이전보다 뉴스 콘텐츠를 많이 찾게 됐는데 종이신문을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평소 종이신문을 통해 정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23.2%)조차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률은 줄었다(19.3%)고 응답했다(이소은 & 오세욱, 2020). 이러한 결과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이미 변화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전통 매체들이 담당하던 공론장과 의제 설정, 사회적 프레이밍의 생산 주체도 변화했음을 암시한다. 소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신종 감염성 질환의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들을 관찰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연구의 코딩 질문지는 프레이밍의 의미적 속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각적 정보 또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뉴미디어의 환경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의 단계와 대응은 주로 PR(Public Relations) 분야에서 위기관리를 둘러싼 역학관계, 준비과정, 실제 수행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위기의 대응 단계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는 핑크(Fink, 1986)가 제안한 4단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학습과 같은 위기 사후관리단계들이 첨가되는 형태를 보인다(김영욱, 2008). 연구자는 위기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위기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징후(prodromal or build up stage), '발생(acute or break out stage)', '만성적(chronic or abatement stage)', '종결(termination stage)' (Fink, 1986). 보도 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초기 보도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논의했다. 핑크(Fink, 1986)는 위험 초기와 해결의 단계를 강조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의 적절한 정보 전략에 대한 공통의 합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핑크는 조직에 발생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기 단계를 구분한 만큼, 위기의 고조 단계를 다소 만성적 상태로 다룬다. 스티지스(Sturges, 1994)는 위기관리 단계를 위기 점증(crisis build up), 위기 고조(crisis break out), 위기 소강(abatement), 위기 종료(termination)로 구분한 바 있다. 연구자는 위기 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정보전달형(instructing), 조정형(adjusting), 내재화형(internalizing)으로 나눠 전략을 제공했다. 정보전달형은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알려주는 것이고 조정형은 대중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재화형은 대중이 위기에 갖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위기 점증 단계에서는 정보전달형, 위기 고조와 소강 단계에서는 조정형과 내재화형, 위기 종료 단계에서는 내재화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Sturges, 1994). 스티지스의 모델을 토대로 집합행동 프레임을 감염성 질환 보도에 대입해 본다면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진단 프레임과 같은 정보 전달, 위기 고조와 소강 단계에서는 예후와 동기 프레임과 같은 사회적 해결과 대안 제시, 공동체 참여와 지지 유도, 종료 단계에서는 공동체의 협력과 일상의 복귀, 참여 등과 같은 동기 프레임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핑크가 위기의 고조 단계를 만성적으로 다루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WHO는 2018년 2월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우선순위에 사스(SARS), 에볼라(Ebola), 지카(Zika) 등과 함께 'Disease X'를 올렸다(WHO, 2018). 'Disease X'는 질병이라는 단어 'Disease'에 미지수 'X'를 붙여 만든 단어로 미지의 병원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성과 적용 가능한 백신 및 약물이 부재하는 질병에 대해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부여했는데 'Disease X'를 등재함으로써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며 현재의 보건학적 대응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명시

한 셈이다. 특히 'Disease X'는 발생 초기에 다른 질병과 혼동될 것이며 빠르고 조용히 퍼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 공동체의 건강 규범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조직하고 매개하는 언론의 존재와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의 사항에서 분명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논증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빌려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내용 분석에 적용된 프레임 유목들이 경험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추론의 근거로 작용한다고는 하지만, 내용 분석의 결과는 결국 프레임 유목에 따라 보도를 분류하고 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즉 현실 세계와 집단을 매개하는 언론의 의미 구성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양태에 대해 해석적인 추론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설명력에 대한 주장은 가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는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는 수용자와 인구집단에게 의도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메시지 효과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효과연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내용 분석 연구를 실시한 연구자들(Semetko & Valkenburg, 2000; Valkenburg et al., 1999)의 경향을 참고할 만하다. 특히 이 연구는 보도 현장의 실용적 대안 모색을 전제로 한 만큼 개인의 메시지 처리와 이것이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적 이해에 기여하고 보도 현상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예후나 동기 프레임이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음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신문 1면이라는 지면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면은 신문 지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시의성과 속보성이 높은 기사가 배치될 확률이 높다(Erbring et al., 1980). 신종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서 진단

프레임이 내포하는 의미 단위의 특징을 고려해보면 신문 1면에 진단 프레임 기사가 실릴 가능성은 다른 프레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지면 수집 기간을 신종 감염성 질환과 관련한 보도가 처음 나온 날을 기준으로 정부 혹은 언론이 신종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종료한 날까지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건강 위기를 겪은 사회의 경험과 언론 보도의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감염성 질환 발생의 종료 이후에도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후나 동기 프레임이 갖는 의미의 특성상 해당 기사는 긴 호흡의 탐사보도나 기획 기사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기사는 여러 지면을 차지하기 때문에 1면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지면의 한계를 보완해 진단, 동기, 예후 프레임의 양적 활용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선호 (2020). 코로나19 관련 시민 인식 조사: 집회 및 시위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은 방역을 위한 필수조치. <미디어 이슈>, 6권 5호, 1-11.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 보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1호, 5-25.
-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원제 (2009). 집중조명 신종플루 보도: 사망자 숫자에 초점, 불안감 조성. <신문과 방송>, 468호, 72-75.
- 김춘식 (2009). 의료보전 이슈에 일반인 익명취재원 활용 신중해야. <신문과 방송>, 468호, 54-61.
- 박아란 · 이소은 (2020). 인포데믹 탐색하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6개국 조사. <미디어 이슈>, 6권 특별호, 1-11.
- 박종근 (2015. 6. 10). 메르스 전사 조준성 “두렵지 않다”. <중앙일보>, 1면.
- 백선기 (2009). 대책 없는 공포 조성에 무력감 느끼는 시청자: 방송보도 분석. <신문과 방송>. 468호, 62-71.
- 변진경 (2020. 11. 26). K방역은 있는데 ‘K언론’은 왜 없을까. <시사IN>, 689호, 30-35.
- 송용희 (2006).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서울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
- 양정혜 (2010). 위험사회의 의미 구성하기: 국내 언론의 신종플루 프

- 레이밍 방식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 169-212.
- 유명순·윤혜정·천진희·주영기 (2017). 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7권 3호, 105-137.
- 유홍식 (2009).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176-198.
- 이귀옥 (2015). 언론, 정보전달자 넘어 감시견 역할 다해야. <관훈저널>, 통권 136호, 29-38.
- 이대혁 (2015. 6. 4). 쉬쉬하는 정부 ...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한국일보>, 1면.
- 이소은·오세욱 (2020).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 및 인식 현황. <미디어 이슈>, 6권 2호, 1-18.
-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37호, 62-91.
- 임영호 (2013). <신문 원론>.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주영기·유명순 (2011). 한국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30-54.
- 한국ABC협회 (2019). 2018 부수보고현황. <http://www.kabc.or.kr/>
- 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신문편집>. 서울: 한국편집기자협회.
- 허용강·차수연·서필교·김소영·백혜진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2호, 75-113.
- 황치성·심재웅 (2009). <신종플루와 언론> (연구서 2009-0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Adekunle, A. L., & Adnan, H. M. (2016). Communicating health: Media

- framing of Ebola outbreak in Nigerian newspapers. *Jurnal Komunikasi: Malay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2(2).
- Anderson, R. M., Heesterbeek, H., Klinkenberg, D., & Hollingsworth, T. D. (2020). How will country-based mitigation measures influence the course of the COVID-19 epidemic?. *The Lancet*, 395(10228), 931-934.
- Bales, S. N. (2004). Making the public case for child abuse and neglect prevention: A FrameWorks message memo. Consulté [http://www.preventchildabuse.org/about\\_us/reframing/downloads/memo.pdf](http://www.preventchildabuse.org/about_us/reframing/downloads/memo.pdf).
- Baresch, B., Hsu, S. H., & Reese, S. D. (2010). The power of framing: New challenges for researching the structure of meaning in news. *The Routledge Companion to News and Journalism*. London: Routledge, 637-647.
- Barnett, M. (1999). Cultur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change: Israel's road to Oslo.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1), 5-36.
- Berry, T. R., Wharf-Higgins, J., & Naylor, P. J. (2007). SARS wars: an examination of the quantity and construction of health information in the news media. *Health communication*, 21(1), 35-44.
- Baum, N. M., Jacobson, P. D., & Goold, S. D. (2009). "Listen to the people": public deliberation about social distancing measures in a pandemic.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9(11), 4-14.
- Beaudoin, C. E. (2007). SARS news coverage and its determinants in China and the U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6), 509-524.
- Bekkers, V., & Moody, R. (2014). Accountability and the framing power of visual technologies: how do visualized reconstructions of incidents influence public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discussions?. *The Information Society*, 30(2), 144-158.
- Benford, R. D. (1993). Frame disputes within the nuclear disarmament

- movement. *Social forces*, 71(3), 677-701.
- Blendon, R. J., Koonin, L. M., Benson, J. M., Cetron, M. S., Pollard, W. E., Mitchell, E. W., ... & Herrmann, M. J. (2008). Public response to community mitigation measures for pandemic influenz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4(5), 778.
- Blumer, H. (1969). Fashion: From class differentiation to collective selec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10(3), 275-291.
- Braunack-Mayer, A. J., Street, J. M., Rogers, W. A., Givney, R., Moss, J. R., & Hiller, J. E. (2010). Including the public in pandemic planning: a deliberative approach. *BMC public health*, 10(1), 501.
- Brown, J. D., & Walsh-Childers, K. (2002). Effects of media on personal and public health.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 453-488.
- Brysk, A. (1995). "Hearts and minds": bringing symbolic politics back in. *Polity*, 27(4), 559-585.
- Carragee, K. M.,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4(2), 214-233.
- CDC. (2011). *Public Health Preparedness Capabilities: National Standard for State and Local Planning*. Division of State and Local Readiness in the 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OPHP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 Coleman, C. L. (1993).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societal and personal risk judgments. *Communication Research*, 20(4), 611-628.
- Coleman, R. (2010). Framing the pictures in our heads. *Doing news framing analysis: Empiric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233-261.
- Cottle, S. (2008). Reporting demonstrations: The changing media politics of

dissent. *Media, Culture & Society*, 30(6), 853-872.

- Covello, V. T., Peters, R. G., Wojtecki, J. G., & Hyde, R. C. (2001). Risk communication, the West Nile virus epidemic, and bioterrorism: responding to the communication challenges posed by the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release of a pathogen in an urban setting. *Journal of urban health*, 78(2), 382-391.
- Cox, C. L. (2020). 'Healthcare Heroes': problems with media focus on heroism from healthcare work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medical ethics*, 46(8), 510-513.
- da Silva Medeiros, F. N., & Massarani, L. (2010). Pandemic on the air: a case study on the coverage of new influenza A/H1N1 by Brazilian prime time TV news. *Journal of Science Communication*, 9(3), A03.
- Danielson, W. A., & Lasorsa, D. L. (1997). Perceptions of social change: 100 years of front-page content in *The New York Times* and *The Los Angeles Times*.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103-116.
- Dauber, C. (2001). Image as argument: The impact of Mogadishu on US military intervention. *Armed Forces & Society*, 27(2), 205-229.
- Davis, L. L. (1992). Instrument review: Getting the most from a panel of experts. *Applied nursing research*, 5(4), 194-197.
- Diani, M. (1992). The concept of social movement. *The sociological review*, 40(1), 1-25.
- DiFrancesco, D., & Young, N. (2011). Seeing climate change: The visual construction of global warming in Canadian national print media. *cultural geographies*, 18(4), 517-536.
- DiFrancesco, D., & Young, N. (2011). Seeing climate change: The visual construction of global warming in Canadian national print media.

- cultural geographies, 18(4), 517-536.
- Durfee, J. L. (2006). "Social change" and "status quo" framing effects on risk perception: An exploratory experiment. *Science Communication*, 27(4), 459-49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Erbring, L., Goldenberg, E. N., & Miller, A. H. (1980). Front-page news and real-world cues: A new look at agenda-setting by the medi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9.
- Eveland Jr, W. P., Hutchens, M. J., & Shen, F. (2009). Exposure, attention, or "use" of news? Assessing aspec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central concept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3(4), 223-244.
- Fahmy, S. (2010). Contrasting visual frames of our times: A framing analysis of English-and Arabic-language press coverage of war and terrorism.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2(8), 695-717.
- Fink, S. (1986). *Crisis management: Planning for the inevitable*.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 Franceschet, S. (2004). Explaining social movement outcomes: Collective action frames and strategic choices in first-and second-wave feminism in Chi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5), 499-530.
- Freimuth, V. S., Musa, D., Hilyard, K., Quinn, S. C., & Kim, K. (2014). Trus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2009 H1N1 pandemic.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9(3), 321-339.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 opinion on un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amson, W. A.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No. HN64. G35 1975.).
- Gamson, W. A. (1992). *Talking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son, R., & Zillmann, D. (2000). Reading between the photographs: The influence of incidental pictorial information on issue percep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2), 355-366.
- Gitlin, T. (2003).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ber, D. A. (1990). Seeing is remembering: How visuals contribute to learning from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0(3), 134-155.
- Graber, D. A. (1996). Say it with pictur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1), 85-96.
- Hallahan, K., Holtzhausen, D., Van Ruler, B., Verčič, D., & Sriramesh, K. (2007). Defining strategic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1(1), 3-35.
- Haynes, S. N., Richard, D., & Kubany, E. S. (1995). Content validity in psychological assessment: A functional approach to concepts and method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38.
- Hodgetts, D., Chamberlain, K., Scammell, M., Karapu, R., & Waimarie Nikora, L. (2008). Constructing health news: possibilities for a civic-oriented journalism. *Health*, 12(1), 43-66.
- Hong, T. (2007). Information control in time of crisis: The framing of SARS in China-based newspapers and Internet sourc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5), 696-699.

- Johnson, B. B., & Slovic, P. (1995). Presenting uncertainty in health risk assessment: initial studies of its effects on risk perception and trust. *Risk analysis*, 15(4), 485-494.
- Jones, K. E., Patel, N. G., Levy, M. A., Storeygard, A., Balk, D., Gittleman, J. L., & Daszak, P. (2008). Global trend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ature*, 451(7181), 990.
- Keck, M. E., & Sikkink, K. (1998).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 the movement society.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217-238.
- Khan, S. (2014). Manufacturing consent?: Media messages in the mobilization against HIV/AIDS in India and lessons for health communication. *Health Communication*, 29(3), 288-298.
- Kinlaw, K., Barrett, D. H., & Levine, R. J. (2009). Ethical guidelines in pandemic influenza: recommendations of the Ethics Subcommittee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Direct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3(S2), S185-S192.
- Klandermans, B. (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583-600.
- Klandermans, B. (1989). Introduction: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the study of 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2, 1-17.
- Krishnatray, P., & Gadekar, R. (2014). Construction of death in H1N1 news in The Times of India. *Journalism*, 15(6), 731-753.
- Krishnatray, P., & Gadekar, R. (2014). Construction of death in H1N1 news in The Times of India. *Journalism*, 15(6), 731-753.

- Lee, S., & Paik, J. E. (2017). How partisan newspapers represented a pandemic: the case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1), 82-96.
- Lennon, R., Rentfro, R., & O'Leary, B. (2010). SOCIAL MARKETING AND DISTRACTED DRIVING BEHAVIORS AMONG YOUNG ADULTS: THE EFFECTIVENESS OF FEAR APPEALS. *Academy of marketing studies journal*, 14(2).
- Lipkus, I. M. (2007). Numeric, verbal, and visual formats of conveying health risks: suggested best practic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Medical decision making*, 27(5), 696-713.
- Lipkus, I. M., & Hollands, J. G. (1999). The visual communication of risk. *JNCI monographs*, 1999(25), 149-163.
- Liu, J., & Han, G. K. (2013). Framing H1N1 influenza in Chinese TV news. *Quarterly Journal of Chinese Studies*, 2(1), 18.
- Noonan, R. K. (1995, March). Women against the state: Political opportunities and collective action frames in Chile's transition to democracy. In *Sociological Forum* (Vol. 10, No. 1, pp. 81-111). Kluwer Academic Publishers-Plenum Publishers.
- Norris, P.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bitow, A. (2013). Collaborative frame construction in social movement campaigns: Bisphenol-A (BPA) and Scientist - Activist mobilization. *Social Movement Studies*, 12(4), 429-447.
- Luisi, M. L., Barker, J., & Geana, M. (2018). American Ebola Story: frames in US National Newspapers.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6(5), 267-277.
- Luisi, M. L., Barker, J., & Geana, M. (2018). American Ebola Story: frames

- in US National Newspapers.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6(5), 267-277.
- Lunn, P. D., Belton, C. A., Lavin, C., McGowan, F. P., Timmons, S., & Robertson, D. A. (2020). Using Behavioral Science to help fight the Coronavirus. *Journal of 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 3(1).
- Lunn, P. D., Timmons, S., Belton, C. A., Barjaková, M., Julienne, H., & Lavin, C. (2020). Motivating social distanc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 online experi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113478.
- Luther, C. A., & Zhou, X. (2005). Within the boundaries of politics: News framing of SA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4), 857-872.
- McLeod, D. M., & Detenber, B. H. (1999). Framing effects of television news coverage of social protest. *Journal of communication*, 49(3), 3-23.
- McLeod, D. M., & Hertog, J. K. (1992). The manufacture of public opinion by reporters: informal cues for public perceptions of protest groups. *Discourse & Society*, 3(3), 259-275.
- Messarís, P., & Abraham, L. (2001).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Framing public life*, 337-353.
- Mummert, A., & Weiss, H. (2013). Get the news out loudly and quickly: the influence of the media on limit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PloS one*, 8(8), e71692.
- Murat Yildirim , Ekmel Gecer & Ömer Akgül. (2020): The impacts of vulnerability, perceived risk, and fear on preventive behaviours against COVID-19, *Psychology, Health & Medicine*
- Oh, D. C., & Zhou, W. (2012). Framing SARS: A case study in Toronto of a mainstream newspaper and a Chinese ethnic newspaper.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20(5), 261-273.

- Ornell, F., Schuch, J. B., Sordi, A. O., & Kessler, F. H. P. (2020). "Pandemic fear" and COVID-19: mental health burden and strategies. *Brazilian Journal of Psychiatry*, 42(3), 232-235.
- Ostrom, E. (2000). Collective ac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al norm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3), 137-158.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Parrott, S., Albright, D. L., Dyche, C., & Steele, H. G. (2019). Hero, charity case, and victim: How US news media frame military veterans on Twitter. *Armed Forces & Society*, 45(4), 702-722.
- Payne, R. A. (2001). Persuasion, frames and norm constructi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7(1), 37-61.
- Polit, D. F., Beck, C. T., & Owen, S. V. (2007). Is the CVI an acceptable indicator of content validity? Appraisal and recommendation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0(4), 459-467.
- Rao, H., Morrill, C., & Zald, M. N. (2000). Power plays: How social movements and collective action create new organizational form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237-281.
- Reese, S. D. (2010). Finding frames in a web of culture: The case of the war on terror. In *Doing news framing analysis* (pp. 33-58). Routledge.
- Reese, S. D., Gandy Jr, O. H., & Grant, A. E. (Eds.).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Routledge. 반현 (역)(2007). <프레이밍과 공공생활>. 파주: 한울 아카데미.
- Rimer, B. K., & Kreuter, M. W. (2006). Advancing tailored health communication: A persuasion and message effects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cation*, 56, S184-S201.

- Rodriguez, L., & Dimitrova, D. V. (2011). The levels of visual framing. *Journal of visual literacy*, 30(1), 48-65.
- Rossmann, C., Meyer, L., & Schulz, P. J. (2018). The mediated amplification of a crisis: Communicating the A/H1N1 pandemic in press releases and press coverage in Europe. *Risk analysis*, 38(2), 357-375.
- Salmon, C. T., & Atkin, C. (2003). Using media campaigns for health promotion. *Handbook of health communication*, 449-472.
- Sandell, T., Sebar, B., & Harris, N. (2013). Framing risk: communication messages in the Australian and Swedish print media surrounding the 2009 H1N1 pandemic.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1(8), 860-865.
- Schudson, M. (1995). *The power of news*.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dson, M. (2003). *The sociology of news (contemporary sociology)*. 이강형 (역)(2014). <뉴스의 사회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Schudson, M. (2018). *Why journalism still matters*. John Wiley & Sons.
- Schwalbe, C. B., & Dougherty, S. M. (2015). Visual coverage of the 2006 Lebanon War: Framing conflict in three US news magazines. *Media, War & Conflict*, 8(1), 141-162.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ih, T. J., Wijaya, R., & Brossard, D. (2008). Media coverage of public health epidemics: Linking framing and issue attention cycl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print news coverage of epidemic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1(2), 141-160.
- Smith, R. D. (2006). Responding to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lessons from SARS on the role of risk perception, communication and

manage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63(12), 3113-3123.

- Snow, D. A., & Benford, R. D.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nt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1), 197-217.
- Snow, D. A., & Benford, R. 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133, 155.
- Snow, D. A., Vliegenthart, R., & Ketelaars, P. (2018). The framing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Its conceptual roots and architecture.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Oxford: Wiley Blackwell, 392-410.
- Sturges, D. L. (1994). Communicating through crisi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7(3), 297-316.
- Tankard Jr, J. W. (2001).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Framing public life* (pp. 111-121). Routledge.
- Tilly, C. (2017).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In *Collective Violence, Contentious Politics, and Social Change* (pp. 71-91). Routledg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 Ungar, S. (2008). Global bird flu communication: Hot crisis and media reassurance. *Science Communication*, 29(4), 472-497.
- Van Bavel, J. J., Baicker, K., Boggio, P. S., Capraro, V., Cichocka, A., Cikara, M., ... & Drury, J. (2020). Using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 to support COVID-19 pandemic response. *Nature Human Behaviour*, 1-12.
- Valkenburg, P. M., Semetko, H. A., & De Vreese, C.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50-569.

- Vasterman, P. L., & Ruigrok, N. (2013). Pandemic alarm in the Dutch media: Media coverage of the 2009 influenza A (H1N1) pandemic and the role of the expert source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4), 436-453.
- Vaughan, E., & Tinker, T. (2009). Effective health risk communication about pandemic influenza for vulnerable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9(S2), S324-S332.
- Walgrave, S., & Manssens, J. (2000). The making of the white march: The mass media as a mobilizing alternative to movement organizations.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5(2), 217-239.
- Wang, W., Smith, R., & Worawongs, W. (2010, June). Googling the H1N1 flu: Investigating media frames in online news coverage of the flu pandemic. In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ingapore.
- Wanta, W. (1988). The effects of dominant photographs: An agenda-setting experiment. *Journalism Quarterly*, 65(1), 107-111.
- Wimmer, R. D., & Dominick, J. R. (2011).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10th edn.
- Wong, N., Harvell, L., & Anaz, N. (2010). Framing the H1N1 flu pandemic: Effect of visual and textual frames on perceptions of flu susceptibility, severity, and attributions for its global outbreak. In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pp. 1-3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WHO interim guid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https://www.who.int/influenza/preparedness/pandemic/influenza\\_risk\\_management/en/](https://www.who.int/influenza/preparedness/pandemic/influenza_risk_management/e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Annual Review of Diseases Prioritized Und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lueprint: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http://www.who.int/emergencies/diseases/2018prioritizationreport.pdf?ua=1>

World Health Organisation (2020)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You, M., Joo, J., Park, E., Noh, G. Y., & Ju, Y. (2017).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ontent in newspaper editorials: Public health concern or leadership issue?. *Science Communication*, 39(3), 313-337.

최초 투고일: 2020년 10월 31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2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2월 18일

## **News frames in the coverage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rk Esur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 role of the media in coping with the health crisis in the community by exploring the use of the frame. Using the concept of 'collective action frame' in Social movement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s text and visual information covering Emerging Infectious Diseases(EIDs) news of Korean daily newspap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media emphasized the most on the diagnosis frame that conveys the status quotes such as spread the virus and confirmed cases of EIDs.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vention, that is the prognosis frame and motivational frame for inducing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public were minimal. These results point out that the coverage of the Korean newspapers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EIDs tends to be conveyed only simple information. Besides, the results of observation whether the media differ in the composition of social meaning through frames according to the stages in which EIDs spreads socially were not different. In the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e future use of collective action frame.

*Key words : news coverage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ollective Action Frame, Health Communication*

〈부록 I〉 신종 감염성 질환 보도 텍스트 프레임 분석 예시

이대혁 (2015. 6. 4). 쉬쉬하는 정부 ...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한국일보>, 1면.

## 쉬쉬하는 정부...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정보접근 어려운 국민은 무방비 정치권서도 "원칙 재검토" 주문 의료계 "지역확산 막기위해 공개불"

정부 "치료 거부 병원 나올" 감염 지역 등 정보 비공개 고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메르스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 등 병원 등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가 유행성 없이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345643 19면 국민들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비공개 원칙은 정치권으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민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확진 알 리기 SNS로 답속의 번민이다"며 비공개 원칙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라말타리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감염 지역과 병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2.6%에 달했다.

보건당국의 정보 독점은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보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최모(69)씨는 "인근 병원 활황과 주민센터 관계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며 "발병 지역의 병원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 의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그

만이지만,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정보를 뺏아주고 있지만, 점차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통돼 비재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다. 경기 화성사부경찰서는 이날 메르스 감염 의심자 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경기 화성시의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최초 유출자 검거에 나섰다. 화성시보건소가 지난달 31일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문건에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혀 있다.

메르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 한 대학병원 A교수는 "메르스 메르스

환자가 대기 발생한 경기 광역의 병원을 공개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병원 의료진들이 해당 병원에 있었던 환자임을 확인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격리 및 치료 정도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보 독점과 인위적인 대처 때문에 3차 감염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보 비공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우성 메르스 민간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이(대 한감람병원)은 브리핑에서 "의료진 속에서 메르스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간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ahk1471@selected@hankookkko.com](mailto:ahk1471@selected@hankookkko.com)

02829830cn

분석 대상	프레임 점수			코딩의 근거가 되는 내용 분석 질문 및 근거
	진단	예후	동기	
헤드라인 (3점)	3	0	0	질문 S3.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판단 근거 문장 쉬쉬하는 정부 ...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리드 (2점)	2	2	0	질문 S5.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언급하는가? 판단 근거 문장 정치권서도 "원칙 재검토" 주문 의료계 "지역 확산 막기 위해 공개불" 정부가 확인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용 병원 등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본문 (1점)	1	0	0	질문 S3. 해당 기사는 감염성 질환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판단 근거 문장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용 병원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정부가 유행성 없이 정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정보 독점은 국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보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총점	6	2	0	

